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인격발달을 위한 예전으로서의 어린이예배의 의미*

김은주(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연구원)

kimeu.mac@gmail.com

한글 초록

본 논문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가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필요한 아늑함의 경험과 인격 발달을 후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임을 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현대사회를 불안 사회로 보고 그 특징으로서 유동 사회와 개인주의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 스타일의 변화를 다룬다. 유동 사회에서 아이들은 인격 발달을 후원하는 확고한 형식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며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변화된 교육 스타일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과중한 과제를 요구한다.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에 도움이 되는 규칙과 형식이 필요하고 인격 발달에 도움이 되는 아늑함을 선물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두 번째로 예전에 대한 개념과 기능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는 어린이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룬다. 우선, 아이들이 예전 활동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종교적, 미학적, 공동체적인 원동력의 의미를 다룬다. 더 나아가 어린이 예배에서 제공받는 언어와 표현의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끝으로 어린이 예배는 안정감과 아늑함을 경험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07400)

있다. 이를 통하여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가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인격 발달을 후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주제어 》

어린이 예배, 개인주의, 현대사회, 유동 사회, 예전, 인격 발달, 아늑함

I. 들어가는 말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는 아이들을 보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된다. 지루한 예배보다는 신나는 프로그램이나 영상을 통한 흥미 위주의 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2000년대의 어린이 예배의 흐름에 반영되어 어린이의 문화적 코드에 맞는 놀이와 게임 등의 다양한 장치를 가미한, 아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유도하는 ‘메빅’과 ‘윙윙’같은 어린이 예배 모델이 한때 크게 유행했다. 그 이면에는 기존의 어린이 예배가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침체했다는 인식과 예전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고리타분하고 아이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예배 방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 모델 예배에 대해 과연 예배가 재미 위주의 문화적 코드를 대거 수용하여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예배에서는 신앙의 신비가 실종되고 ‘거룩함’ 같은 종교적 차원을 아이들에게 매개해주지 못한다는 비판과 아이들이 예배에 관한 어떤 이미지를 제공받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양금희, 2011, 301-303).

그렇다면 이제 전통적인 예배로 다시 눈을 돌려, 예전(liturgy)으로서의

예배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게 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가 아이들의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며 인격 발달에 필요한 아늑함을 선물하고 인격 발달을 후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임을 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현대사회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II). 현대 사회를 ‘유동 사회’와 개인주의의 특성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교육의 변화를 다룰 것이다. 유동 사회의 특징인 사회적 형태들의 빠른 해체와 ‘개인화’는 행동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준거의 틀을 빠르게 해체하고 자기 선택의 책임의 과중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변화된 교육 스타일은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고유한 ‘자기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요구한다. 선택과 결정이라는 과중한 압박과 고유한 자기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는 준거의 틀이 되어줄 수 있는 규칙과 형식이 필요하고 아늑함을 선물해줄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공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를 이해하기 위하여 예전에 대한 개념과 기능을 다룰 것이다(III). 마지막으로 예전으로서 어린이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룰 것이다(IV). 이와 관련하여 우선 아이들이 예전 활동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종교적, 미학적, 공동체적인 원동력의 의미를 다룰 것이다. 이어서 어린이 예배에서 제공 받는 종교적 언어와 표현의 의미를 다루고 끝으로 어린이 예배는 안정감과 아늑함을 경험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말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 예배가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자아 형성을 돕고 인격 발달을 후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II.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징

1. 유동 사회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로서 불확실성과 불안이 일상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안전함에 대한 욕구는 높아만 가고 있다(Lantermann, 2019). 바우만(Bauman, 2009)은 ‘유동하는(액체) 근대’라는 키워드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만연한 현대사회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동성’의 특징은 고체와 대비되는 액체 혹은 기체라는 유체의 특성을 통해 제시된다. 유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과 가볍기 때문에 이동하기 쉽다는 특성, 일정한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 특성으로 나타난다(백승대, 2008, 293). 이러한 유동성의 측면에서 바우만은 여러 가지 사회 형태들의 빠른 해체를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대의 ‘고체성’으로 대변되는 견고한 사회 제도와 같은 사회적 형태들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일상적인 일들과 용인될 만한 행동양식이 반복될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유동하는 근대에서는 사회적 형태들이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수명이 단축됨으로써 장기적인 생활 전략을 세우거나 행동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준거가 사라져 가고 있다(Bauman, 2010, 7).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불안을 낳는다(Bauman, 2013, 231).

유동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고체성’으로 대변되는 공동체가 해체 혹은 약화하므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오로지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인화’를 들 수 있다. 테일러(Taylor, 2015, 102)의 표현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각자가 책임을 지는 시대이다. 유동하는 근대에서의 개인화는 개인의 자율화를 표방하는 단계를 넘어서 개인에게 닥치는 문제와 고통을 오롯이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동체의 약화는 사람들 간의

유대 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단단한 유대 관계 대신 맺고 끊음이 편리한 형태의 느슨한 관계가 유동하는 사회에 더 적절하다. 스타일을 재빨리 바꾸고 헌신과 충성을 거리낌 없이 버릴 수 있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개인의 이해관계의 덕목이 되고 있다. 개인의 실패를 보호하거나 완충해줄 공동체는 점점 줄어들고 안전망을 형성해줄 사람들 간의 유대 관계가 약화됨으로서 선택에 대한 대가는 온전히 개인이 떠맡아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나치게 선택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았다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했던 공동체가 해체됨으로써 개인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선택해야만 하는 의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고통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선택에 내포되어있는 위험부담 역시 개인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은 힘들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넘겨지는 책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백승대, 2008, Bauman, 2010, 9-11, 210).

2. 개인주의

테일러(2015)는 현대사회의 불안의 근원 가운데 하나를 개인주의에서 찾고 있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삶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Bella, 2001, 263). 이러한 개인주의는 현재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적인 권위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도덕적 법칙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인 개인이 되는 것이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Kenneson, 2016, 219). 자율적인 개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과 표현의 근원이 되고 스스로를 삶의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다(김수정, 2019, 20). 자율적인 개인이 됨으로써 과거에는 권위의 명령을 수용하기만 하면 되었던 문제의 해결책을 이제는 스스로 생각해 내고 결정해야만 한다.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좌표 없는 세상의 불확실성 가운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Laurent, 2001, 153).

테일러(2015, 53-55)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독특성과 고유함을 드러내야 하는 개인의 과제는 어떤 선택이 가치 있는 것인가가 아니라 선택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됨으로써 삶에 대한 의미의 지평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삶의 의미의 상실은 곧 자기 정체성의 불안을 초래한다. 자기 정체성은 자신의 삶을 둘러싼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무엇이 좋은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유보 혹은 의미 없어진 상태가 됨으로써 삶의 높낮이가 사라지고 덩그러니 개인이 됨으로써 삶의 독특성과 고유함을 드러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교육 스타일의 변화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다원주의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의 교육 스타일도 변화되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교육방식 대신 아이들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는 교육(Hanselmann·Hild·Lohse, 1984, 192), “명령과 복종의 교육에서 타협의 교육”으로,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에서 자기 발달의 주체”로 변화한 것이다. 변화한 교육의 핵심에는 ‘자기 되기’, ‘자아실현’ 혹은 ‘자아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주체적인 인격체로 경험하고, 자기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고유함, 자유로움, 독립적인 행동 능력을 획득해야 함을 의미한다(김수정, 2019, 18; Schweitzer, 2012, 66-70).

이는 아이들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건강한 자아 발달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주의의 영향 아래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은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선택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바우만(2013, 236)의 표현

처럼, 자기 존재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부모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협상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라는 자유와 자율은 아이들에게는 과중한 것이다(김은주, 2017, 307-308). 그리고 자기실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은 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주변 인물들, 특히 부모나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한 인정과 지지를 필요로 한다(Taylor, 2015, 50, 68-69).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은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장소(집, 학교, 학원, 돌봄, 조부모 집 등)를 이동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삶에서 아이들은 끊임없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경험한다. 슈바이처(Schweitzer, 2012, 198)는 아이들이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형식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우만(2010, 7)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나 일상적인 일들과 용인될만한 행동양식이 반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제도들과 같은 고정적인 사회적 형태들이 소멸하는 것을 유동 사회의 특징으로 보았다. 즉, 아이들은 지나친 선택의 자유에 내던져져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고정적인 형식과 규칙은 점점 그리고 너무나 빨리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며 가족 전체가 둘러앉아 먹던 저녁 식사와 같은 기존에 의례적 역할을 해 오던 기능들이 최대한 약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 하루에 몇 번씩 장소를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어린이, 부모를 대신한 제3의 인물에 의해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과 다양한 수행 능력 및 적응 능력이 아이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아이들에게 의례의 성격을 지닌 확고하고 고정적인 형태를 제공해 주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슈바이처는 확고한 의례의 형태를 아이들이 제공받는 것이 인격 발달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의례의 중요한 형태로서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꼭 필요한 고정적인 형식과 지속성이 유지되는 신뢰할만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지, 아이들의 자아 형성과 인격 발달을 후원하는 구성요소로 기능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II. 예전에 대한 이해

1. 예전이란?

강희천(2003, 123-124)에 의하면 예전(liturgy)이란 개인적인 기도나 자발적인 헌신 행위와는 구별되는 “교회의 공식적 의례(rites)나 예식(ceremonial)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는 신앙공동체의 공식적 예배를 일컬으며 좁게는 예배의 형식과 순서 혹은 예배학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예전은 넓은 의미에서 의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의례를 포괄적인 범위로 정의하면, 종교적이지 않은 행위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지닌 행위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느슨하게 사용된다(Bell, 2013, 91). 의례는 종교적인 영역(예배, 성만찬, 세례)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영역(쇼핑, 식사, 스포츠 의례)에서 또 사적인 영역(식사, 이 닦기)과 공적인 영역(국가 의례, 입학식)에서 이루어진다. 일상적 용어에서 의례는 일상적 반복을 지칭하는 루틴(Routine)과 구분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의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조직해 나가게 되는데, 특정한 사건(Dinge)을 배우고 특정 영역이나 삶의 특정한 시간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Husmann, 2017, 1). 예전 역시 의레이지만 모든 의례가 예전은 아니다. 스미스(Smith, 2019)는 특별히 세속적인 의례와 예전에 주목하면서 예전을

‘궁극적 관심을 표현하는 의례(ritual)’로 이해한다. 즉, 예전은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전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스미스(126-127)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만 아니라, 세속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특정한 의례적 실천을 예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의 예배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전망을 심어주고 그 나라의 시민을 형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기독교 예전이다. 즉, 예전으로서의 예배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춘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예배로서 반복적 실천이 중요하며,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특정 목적을 가진 중요한 실천적 의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종교적 표현행위로서의 예전의 기능 (W. Jetter를 중심으로)

예터(Jetter, 1978)는 그의 저서 『Symbol und Ritual』에서 의례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진행했다. 예전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터의 의례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터(93-104)는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의례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예전으로서의 예배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첫째로, 의례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고 보호의 공간이 되어준다. 참여자들은 예전에서 경험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형식과 언어를 만나게 된다. 예전에서 제공되는 언어와 표현들은 새로운 삶의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을 준다. 성인이 되거나 학교에 입학했을 때, 혹은 누군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야 할 때, 이러한 새로운 삶과 경험을 매번 스스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하여 성인식이나 입학식, 장례식과 같은 의례는 새로운 삶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형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경험을 시작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개인은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예전의 틀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예전은 보호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두 번째로, 의례는 확실한 행동양식을 제공하고 모방을 통하여 습득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경험해 왔고, 의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막을 제공한다.

세 번째로, 의례는 규칙과 의미를 반영한다. 공동체를 위한 신뢰할만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의례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들을 제한한다. 강요되는 것이 아닌 한, 이러한 규칙은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생활 습관을 갖게 한다.

네 번째로, 의례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성을 경계 짓는다. 의례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소속되어 있고 어떤 목표와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을 통하여 의례 참여자들은 외부와 자신들을 구분 짓는다.

다섯 번째, 의례는 '거룩'과 '세속' 사이를 구분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예배가 형식 없이 거행되면, 일상적인 자리와 구분이 모호해진다. 반면에 의례가 지나치게 엄격한 형식 안에서 거행되면, 의례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낮설고 기이한 자리에 참여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적합한 형식을 갖춘 의례는 참여자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의례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표현함으로써 희망과 안식처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희천(2003, 167)도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 머물게 하는 경험을 통하여 결국 일상적인 시간과 장소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촉진하는 예전의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례는 반복을 통해서 지속된다. 예부터 내려오던 것이 끊임 없이 다시 서약 되고 반복됨으로써 의례는 공공의 것임과 동시에 개인을 위한 것이 되게 한다. 의례는 반복을 통하여 참여자들을 강화시키고 언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육 층과 연령층을 초월하게 한다.

그룸(T. Groome)도 이와 유사하게 참여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적 삶의 형태를 표현하게 하는 예전의 기능을 지적하고 있다. 예전은 참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하나님을 중재해 주고 신앙인들의 헌신된 실천을 통하여 세상에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게 한다는 것이다(강희천, 2003, 163).

그러므로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예전의 기능은 예배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을 다룰 수 있는 언어와 표현을 제공하며 태도의 준거가 되는 규칙과 형식을 부여하고 거룩한 자에게 나아가는 행동양식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다. 예전의 특징인 형식과 규칙은 경계를 부여하여 신뢰할만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룩한 자에게 나아가는 행동양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하여 예전 참여자들은 안식처를 제공받고 새로운 경험을 다루는 태도를 배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Gäbler, 2001, 49).

3. 예전의 형성적 기능

파머(P. Palmer)는 학습자들이 개념과 사실의 공적 교육과정 못지않게 제도적 양식과 관행의 ‘숨은 교육과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문화나 환경이 제공하는 이미지들에 의한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배움의 내용과 별개로 배움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제공받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은 배움에 대한 무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Palmer, 2016a, 22-25, Polanyi, 2015, 16). 테일러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데, “인간은 자신에 관한 이론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회적 상상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상상’이란 세상에 관한 정서적, 비인지적 이해를 말한다. 상상은 이야기와 서사, 신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상상력을 위한 배경과 ‘의미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는다(Smith, 2019, 99). 테일러(2010, 43)는 이러한 사회적 상상이 이

미지와 이야기, 신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한 교육은 예전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전으로서의 예배는 풍성한 상징과 이미지와 성경 이야기들을 제공하며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룸(2011, 339)은 상징들과 말씀, 성례가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고 기념되고 이해되는 방식은 공동체 성원에게 강력한 형성적 영향력을 지닌다고 말한다. 예전은 다양한 이미지들과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상상을 위한 배경, ‘의미의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전은 선(先)인지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형성해 나간다. 즉,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스미스(2019, 35-36)는 모든 예전은 교육이며, 모든 예전에는 암묵적인 세계관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웨스터호프(J. Westerhoff)도 기독교인들은 인지적 차원의 교수-학습 과정이 아니라 예전 참여를 통하여 삶에 대한 자세를 배우며 어떠한 시각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구상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고 강조한다(강희천, 2003, 145-146).

스미스(2019, 47)는 예전의 이러한 형성적 기능이 곧 교육임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예전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분을 형성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의 방향과 정서적 반응,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을 사로잡는 욕망이고(Dewey, 2019, 280, 354) 이 욕망을 형성하는 것이 반복적인 행위와 실천, 곧 예전이다. 듀이(Dewey, 2019, 498)는 ‘욕망’과 ‘기분’이라는 단어 대신 ‘관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관심의 종류와 양이 곧 그 사람의 자아의 질을 나타내며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무엇을 욕망하는지, 혹은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것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지가 곧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듀이가 자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선택에 의하여 끊임

없이 형성되어 간다고 지적한 것처럼, 반복적인 행동적 실천은 형성의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예전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형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IV. 예전으로서 어린이 예배가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주는 의미

아이들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바우만의 표현에 따르면 아이들은 유동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사회는 불안 사회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이 필요하고, 그런 환경은 안식을 선물하고 인격 발달을 후원한다. 케건(Kegan, 1994)은 ‘고정적인 환경(Haltende Umgebung)’이 빠른 변화의 시대에 선택과 결정, 성과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있는 아이들에게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어린이 예배가 다방면으로 인격 발달을 후원하는 문화의 구성요소로서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에 도움이 되는 규칙과 형식이 필요하고 아늑함을 선물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예전적인 어린이 예배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신뢰할만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형식과 표현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필요한 이야기들과 상징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인격 발달을 후원할 수 있다.

1. 예전 참여를 통해 경험하는 원동력

독일 기독교교육학자 에버하르트(O. Eberhard)는 아이들의 예전 참여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가 아이들의 신앙형성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지를 주목하였다. 에버하르트(1929)는 생명력 있는 종교에서

는 이성적(합리적) 형태인 종교 교리와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인 영혼의 심층 또한 종교교육의 필요한 요소라는 교육적 입장에 근거하여 어린이 예배에 대한 구상을 펼쳐나갔다. 오토(Otto, 1918, 1-5)는 종교에는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체험의 독특한 영역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를 ‘성스러움(누미노제)’의 범주와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했다. 오토(205)는 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가르쳐질 수 없으며 단지 촉발되고 자극되고 각성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종교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거룩함의 감정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따라 느끼고, 들어가 느끼는” 것이며, 언어와 개념들 속에서 보다는 “엄숙한 자세와 몸짓, 목소리와 얼굴 표정”, 회중의 엄숙한 집회와 예배 속에서 더 살아있다고 말한다. 이런 누미노제를 자극하고 도움을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룩한 상황’으로서, 거룩한 상황에서는 모든 자극 가능성이 극대화되고, 표현 방법과 누미노제의 자극이 만나서 울리게 된다(Otto, 2018, 125-126). 에버하르트(44-45)에 따르면 이러한 ‘거룩한 상황’은 고유한 경축 속에서 행해지는 예배, 즉 예전으로서의 예배로서 아이들의 종교성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에버하르트는 예전 참여를 통하여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 가지의 원동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원동력은 종교적인 것이다. 종교적 원동력은 영원한 것과의 직접적인 조우를 통하여 그리고 삶의 표면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곳으로 침잠함으로써 경건의 심층을 추구한다(Eberhard, 1929, 58). 이러한 종교적 차원은 아이들의 자아 형성에 중요하다. 에릭슨(E. Erikson)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심층적 차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서 초월적인 존재를 배제하지 않고 자신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 속에서 자신을 형성해 가는 데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Schweitzer, 2012, 50-51).

두 번째는 미학적인 것이다. 미학은 아름다움이나 예술에 관한 숙고를

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예술은 이상을 따라 만드는 것으로서, 상징적 특징을 지니며 실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 의미로 이해된다(양금희, 2010, 249, 253-254). 예전 참여자들은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감수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미학적인 원동력은 형태와 형식으로 드러나고, 영적인 것을 추상적 단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상징으로 옷 입는 것을 더 선호한다(Eberhard, 1929, 58). 상징은 보이는 것을 통하여 추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통로로써,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형성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효과를 이끌어 낸다(강희천, 2003, 170). 슈바이처(2012, 212)는 종교교육에 있어 미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장엄한 오르간 연주, 제단에 장식된 다양한 상징들, 빛과 어두움의 교차, 예스러운 언어, 동작, 기도 등은 미적인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미적 경험은 개념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감정적인 것으로서 아이들이 잘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며 ‘직관을 통한 인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슈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에 따르면 직관을 통한 인식은 사유를 통한 인식과는 다르다. 직관에 따른 인식이란, 시간적인 것 안에 있는 사물을 꿰뚫어 영원한 것이 파악되고 경험적인 것 안에 있는 사물의 초경험적인 원인과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다(Otto, 1918, 174). 예배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상징들을 통하여 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직관을 통하여 사물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또는 공동체적인 것이다. 개신교 영성의 개인적 특성은 공동체의 강조를 통하여 극복되어야 한다(Eberhard, 1929, 58). 예배는 공동체가 본 것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반복적인 상징적 행위로서, “예전의 형태는 기본적 특성상 하나의 공통적 행위이며, 그 참여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상징적 행위”이다(강희천, 2003, 179). 공동체적인 원동력은 예전의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배는 상징적 행위와 사회적 행

위를 결합한 것으로서, 예배 참여자들은 상징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신앙공동체 구성원의 개인적이며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의 행동양식에 대한 재확인과 성찰을 격려한다(강희천, 2003, 143-144). 상징적 의사소통은 지식과 계층과 나이를 초월하게 하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와 예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도록 한다.

아이들은 개인적인 영성을 넘어 공동체적인 영성을 지향하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자아만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자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Palmer, 2016b, 124).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 정체성 형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상호 의존하고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타인의 인정이 자기 정체성 형성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Taylor, 2015, 67-73). 이런 의미에서 상호 의존적인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아이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바우만은 현대사회의 특징으로서 유동성을 지적하면서 사람들 간 유대 관계의 수단적, 임시적 측면을 들었다. 그러나 테일러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가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임시적이고 수단적인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개인적인 영성과 더불어 공동체적인 영성을 키워나가는 것은 아이들의 인격 발달을 위해서 중요하다.

2. 언어와 표현제공

종교적 언어와 표현을 제공받는 것은 아이들의 인격 발달과 종교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은 풍부한 표현 언어들을 획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 고유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에 필수적인 언어는 혼자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관계하는 타인들, 특히, 부모나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의사소

통을 통하여 언어를 습득하고 자기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특히 삶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의사소통은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은 일회적으로 끝나거나 삶의 초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 정체성이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Taylor, 2015, 49-52).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리주토(Rizzuto, 2000, 85-95)는 아이들이 생애 초기에 이미 종교적 차원의 경험을 하는데, 이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해석할만한 경험으로 간주한다. 아이가 부모를 통해 따뜻한 보살핌과 필요를 공급받음으로써 아이는 따뜻함과 아늑함, 보호에 대한 느낌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원초적인 신뢰와도 깊이 관련된 것으로서 아이의 원초적 신앙 형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될 경우, 어린이의 인격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 유아기의 경험과 결부된 두려움, 그리움 등을 의식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러한 언어와 표현방식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종교적 경험들은 무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거나, 대중 매체나 세속 문화가 전하는 다양한 이미지들과 메시지와 결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중 매체와 현대 문화는 상업주의와 영합하여 주요한 소비 계층인 아이들을 공략하기 위하여 다양한 캐릭터와 장난감들을 선보인다. 아이들은 포켓몬과 같은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Schweitzer, 2012, 58-59, 72-73). 이제 광고 기획자는 디자인과 포장, 홍보를 책임지기보다 “사람들이 정체성을 얻고 세상을 이해하는 의미체계 전체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스미스(2019, 152)의 지적은 대중 매체와 소비문화가 아이들의 원초적 경험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며 그들의 세계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아이들은 어린이 예배에서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뿐만이 아니라 성경 이

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원초적 경험과 결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언어와 표현을 제공받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 삶에 관한 이야기, 상징, 예전은 아이들이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길을 안내하는 방향 제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Walter, 2005).

3. 아늑함의 경험

어린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틀은 아이들에게 베틀목과 같은 보호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예배는 무방비의 상태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므로 신뢰할만한 공간을 구성한다. 의례는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예배를 일상적인 자리와 구분한다(Jetter, 1978, 95). 이러한 신뢰할 만한 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안정감과 아늑함을 선물 받을 수 있다. 아늑함과 안정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장소를 이동함으로 상황 적응 능력을 요구받는 현대의 아이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일률적인 시간 이해에 맞추어진 삶의 형태에서 아이들은 매일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닌다. 그와 더불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다양한 행동양식을 경험한다. 이러한 것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적응 능력과 방향감각 능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어린이가 이일수록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안심되고 안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공간을 아이들은 쉽게 친밀한 공간으로 느낀다. 이를 위해 일정한 형식과 순서를 갖춘 어린이 예배가 도움이 될 수 있다(Grethlein, 1998, 45). 예전에는 반복적인 요소가 중요한데, 예배는 일정한 순서와 형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반복성과 고정성은 예배의 새로운 내용과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한다.

파머(2016a, 160-163)는 배움의 공간의 세 가지 주요 특성으로 '개방성', '경계', '환대하는 분위기'를 들고 있다. 이는 예배 공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간 자체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우지연,

2020, 316-317). 그러나 무방비적인 공간은 신뢰할만한 장소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배 공간은 경계(Grenze)를 통하여 신뢰할만한 공간이 된다. 예배에서의 경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부서와 구분된 자체 '부서실'을 확보했다고 해서 공간의 경계가 그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배의 공간은 일상적인 자리와의 경계를 요구한다. '세속'과 '거룩'을 구분해줄 수 있는 형식과 규칙을 통해 예배 공간은 경계를 갖추게 된다(Jetter, 1978, 93-104). 베리만(Berryman, 2011, 145)은 어린이들이 예배실로 들어가는 것을 여행에 비유하면서 가정이나 학교 또는 어린이 센터에서의 일상적인 삶의 구조와 비교되는 반(半)구조의 광야로 들어가는 순례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공간의 경계는 폐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계들의 견고함에 의해 공간의 개방성이 만들어진다. 경계를 통하여 제한된 예배 공간은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라 개방성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게 한다. 개방성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Palmer, 2016a, 160), 예배 공간은 서로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을 제거하고 위계 질서적인 관계를 허물며, 시간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개방성은 '환대'와도 연결되어 있다. 에터(1978, 96)는 예전으로서의 예배가 자칫 새로운 것에 대한 폐쇄로 경직될 양면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그러므로 예배가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 낯선 것에 개방적일 수 있는 환대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예배에 처음 온 아이들이 환영받고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은 하나님의 '긍정'을 경험하는 중요한 정서적 요소이다. 환대는 열렬한 환영의 이벤트라기보다는 손님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으로 손님에게 친근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이어야 한다(Nouwen, 1999, 120-124). 그러한 공간은 아이들의 두려움과 희망이 삶의 이야기(설교)를 통해서 세심하게 다루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며 다른 거짓 치료제(Palmer, 2016b, 125) 속으로 도피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오락에 몰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어린이 예배를 구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러한 공간은 외부와 자신을 구분하는 규범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세속’과 ‘거룩’ 사이를 분리할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해 주지 못함으로써 예배 공간의 아늑함을 제공해 주지 못하며, 현대 문화에 대항하는 예전의 형성적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아이들은 이미 대중 매체와 오락 산업으로 시끌벅적한 세상의 문화와 그 이야기에 흠뻑 젖어 있다. 교회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문화와 이야기가 넘쳐난다면, 아이들은 어디에서 인격 발달에 중요한 아늑함과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스미스(2019, 341)가 지적한 것처럼, 어린이 예배가 세속적 예전에 ‘예수’를 부가적으로 덧붙인 형태와 거의 다를 바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형성해 나가는 기독교 예배가 지향해야 할 예전의 기능을 맛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예배는 아늑함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공간, 환대를 통해 친근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예전적 공간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이 질문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자 했다. 첫째로,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장소를 이동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적응력과 방향감각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인격 발달을 후원하는 확고한 형식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는 아이들에게 형식을

제공하고 예배 형태의 고정성은 버팀목과 같은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두 번째, 현대의 아이들은 결정과 선택이라는 무한한 자유와 그것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과 자아를 형성해야 하는 교육적 과제 앞에 놓여있다. 예전으로서 어린이 예배는 아이들이 종교적, 미학적, 공동체적인 원동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서, 또 삶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자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아이들이 삶의 초기에 경험하는 원초적 종교의 형태는 어린이 예배가 제공하는 표현 언어와 결합하여 무의식 차원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자신의 두려움과 그리움, 희망 등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종교적 언어와 표현방식을 제공 받음으로써 정체성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는 형식과 규칙을 제공하고 ‘세속’과 ‘거룩’을 구분해주는 경계를 통하여 신뢰할만한 공간을 만들고 아늑함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 예배가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자아 형성을 돕고 인격 발달을 후원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강조하였고 종교교육의 중요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희천 (2003).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ang, H. C. (2003). *Critical reflection on Christian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김수정 (2019). 개인화 시대의 '개인주의'에 대한 개념적 탐색. **한국언론정보학보**, **94**, 7-33.
- [Kim, S. J. (2019). The conceptual exploration of 'Individualism' and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94**, 7-33.]
- 김은주 (2017). 기도에 대한 기독교교육학적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50**, 291-318.
- [Kim, E. J. (2017). The christian pedagogical approach to prayer.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0**, 291-318.]
- 백승대 (2008). 현대사회를 보는 바우만의 시각: 탈근대성과 유동적 근대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6**, 277-301.
- [Baek, S. D. (2008). Z. Bauman's perspective on contemporary society: post-modernity and liquid modernity.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277-301.]
- 양금희 (2010). **이야기·예술·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Yang, K. H. (2010). *Story·art·christian education*.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양금희 (2011). **기독교 유아·아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Yang, K. H. (2011).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우지연 (2020). 교회 교육공간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환경구성. **기독교교육논총**, **62**, 313-334.
- [Woo, J. Y. (2020). A study on the Christian learning environmental arrangement in church educational spac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2, 313-334.]

- Bauman, Z. (2009). **액체 근대**. 이일수 역. 서울: 강. (원저 2000 출판)
[Bauman, Z. (2009). *Liquid modernity*. Translator: Lee, I. S. Seoul: Kang.]
- Bauman, Z. (2010). **모두스 비벤디**. 한상석 역. 서울: 후마니타스. (원저 2007 출판)
[Bauman, Z. (2010). *Modus vivendi*. Translator: Han, S. S. Seoul: Humanitas.]
- Baumann, Z. (2013).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홍지수 역. 서울: 봄아필. (원저 2001 출판)
[Bauman, Z. (2013). *The individualized society*. Translator: Hong, J. S. Seoul: BomApil.]
- Bell, C. (2013). **의례의 이해**. 류성민 역.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원저 1997 출판)
[Bell, C. (2013). *Ritual: perspective and dimension*. Translator: R, S. M. Osan: Hanshin University Press.]
- Bella, R. 외 (2001). **미국인의 사고와 관습**. 김명숙·김정숙·이재협 역. 서울: 나남출판. (원저 1985 출판)
[Bella, R. et al. (2001).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Translator: Kim, M. S.·Kim, J. S.·Lee, J. H. Seoul: Nanam.]
- Berryman, J. W. (2011). **가들리 플레이**. 양금희·김은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91 출판)
[Berryman, J. W. (2011). *Godly play*. Translator: Yang, K. H.·Kim, E. J. Seoul: Publishing House of the PCK.]
- Dewey, J. (2019). **민주주의와 교육**. 이흥우 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저 1916 출판)
[Dewey, J. (2019). *Democracy and education*. Translator: Lee, H. W. Paju: Kyoyookbook.]
- Eberhard, O. (1929). *Kind und kultus. kinderkirche und schule*. Gütersloh: Rufer.
- Gäbler, Ch. (2001). *Kinder im gottesdienst*. Stuttgart: Kohlhammer.
- Grethlein, Ch. (1998). Es muss feste bräuche geben ... Blohm, J., & Walter, U.

- (Eds.). *Ich will mitten unter euch wohnen. kirche mit kindern: ermutigungen, herausforderungen, neue impulse*. Stuttgart: Junge Gemeinde, 43-51.
- Groome, T. (2011).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3 출판)
- [Groome, T. (2011).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Translator: Lee, K. M. Seoul: Publishing House of the PCK]
- Hanselmann, J. & Hild, H. & Lohse, E. (Eds.). (1984) *Was wird aus der kirch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 Husmann, B. (2017). *Rituale. das wissenschaftlich-religionspaedagogische lexikon im internet*. 1-14. <http://www.bibelwissenschaft.de/stichwort/100245/>
- Jetter, W. (1978). *Symbol und ritual. anthropologische elemente im gottesdiens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Kegan, R. (1994). *Die entwicklungsstufen des selbst*. München: Kind Buchhandlung & Verlag.
- Kenneson, P. D. (2016). **열매 맺다**. 홍병룡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원저 1999 출판)
- [Kenneson, P. D. (2016). *Life on the vine*. Translator: Hong, B. R. Seoul: Holy Wave Plus Publishing Company.]
- Lantermann, E.-D. (2019). **불안사회**. 이덕임 역. 서울: 책세상. (원저 2016 출판)
- [Lantermann, E.-D. (2019). *Die radikalisierte gesellschaft: von der logik des fanaticismus*. Translator: Lee, D. Y. Seoul: Chaeksesang.]
- Laurent, A. (2001). **개인주의의 역사**. 김용민 역. 서울: 한길사. (원저 1993 출판)
- [Laurent, A. (2001). *Histoire de l'individualisme*. Translator: Kim, Y. M. Seoul: Hangilsa.]
- Nouwen, H. J. M. (1999). **상처 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원저 1972 출판)
- [Nouwen, H. J. M. (1999). *The wounded healer*. Translator: C, W. J. Seoul:

Dourano.]

Otto, R. (1918). *Das heilige. über das irrationale in der idee des göttlichen und sein verhältnis zum rationalen.* (Rev. ed.). Breslau.

Otto, R. (2018). **성스러움의 의미.** 길희성 역. 서울: 분도출판사. (원저 1963 출판)

[Otto, R. (2018). *Das heilige.* Translator: Gil, H. S. Seoul: Bundo Publisher.]

Palmer, P. J. (2016a).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역. 서울: IVP. (원저 1993 출판)

[Palmer, P. J. (2016a). *To know as we are known.* Translator: Lee, S. T. Seoul: IVP.]

Palmer, P. J. (2016b).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역. 파주: 글항아리. (원저 2011 출판)

[Palmer, P. J. (2016b).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Translator: Kim, C. H. Paju: Geulhangari Publisher.]

Polanyi, M. (2015). **암묵적 영역.** 김정래 역. 서울: 박영사. (원저 2010 출판)

[Polanyi, M. (2015). *The tacit dimension.* Translator: Kim, J. L. Seoul: Parkyoungsa.]

Rizzuto, A. M. (2000). **살아있는 신의 탄생.** 이재훈 외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저 1979 출판)

[Rizzuto, A. M. (2000). *The birth of the living God.* Translator: Lee, J. H. et al. Seoul: The Korea Psychotherapy Institute.]

Schweitzer, F. (2012). **어린이의 다섯 가지 중대한 질문.** 손성현 역. 서울: 산티. (원저 2000 출판)

[Schweitzer, F. (2012). *Das recht des Kindes auf religion.* Translator: Son, S. H. Seoul: Shanti Books.]

Smith, J. K. A. (2019).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박세혁 역. 서울: IVP. (원저 2009 출판)

[Smith, J. K. A. (2019). *Desiring the kingdom.* Translator: Park, S. H. Seoul:

IVP.]

Taylor, C. (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역. 서울: 이음. (원저 2004 출판)

[Taylor, C. (2010). *Modern social imaginaries*. Translator: Lee, S. G. Seoul: eum books.]

Taylor, C. (2015). **불안한 현대 사회**. 송영배 역. 서울: 이학사. (원저 1991 출판)

[Taylor, C. (2015). *The malaise of modernity*. Translator: Song, Y. B. Seoul: Ehak Publishing Co.]

Walter, U. (2005). *Die kinder in der gemeinde ernst nehmen - die arbeit mit kindern ernst nehmen. evangelische kinder- und jugendarbeit im perspektivenwechsel*. Münster.

Abstract

The Meaning of Children's Worship as a Liturgy for Personality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Modern Society

Eun-Ju Kim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intends to say that children's worship as a liturgy for children living in modern society is an important place to support children's personal development and experience of coziness necessary for their pers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is thesis first regards modern society as an unstable society, analyzes fluid society and individualism as the causes, and deals with changes in educational style accordingly. In a fluid society, children are not provided with a solid form and lasting environment that supports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education style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 and pluralism requires a heavy task of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one's life and constantly making choices and decisions. Therefore, children need rules and forms that help them live together, and they need a space that can give them comfort that helps them develop their personality. As an argument for this, second,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cept and function of the liturgy in order to understand the worship of children as the liturgy. The third deals with the element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ersonality that can be experienced in children's worship. First, it deals with the meaning of religious, aesthetic, and communal driving forces that children can experience in children's worship, focusing on Eberhard's research. In addition, it deals with the meaning of language and expression methods provided in children's worship, and finally, it says that

children's worship can be a space where you can experience stability and coziness. Through this, it is emphasized that children's worship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the personal development of children living in modern times.

《 **Keywords** 》

children's worship, individualism, modern society, fluid society, liturgy, personal development, coziness

- 투고접수일 : 2021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2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30일